


2019 연간보고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공익

동행

VOL.02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Lawyers for Public Interests

동행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 곁에서 바라보는 귀, 듣는 눈으로 들어
법의 목소리로 세상에 전달합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을 위해 공익소송, 자문 및 법률연대활동을 통해 지원하고 인권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는
비영리공익법률단체입니다.

* 도움

-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 곁에서
관련 공익인권 소송
- 광주전남지역 인권단체 법률지원
- 지역 인권 환경에 대한 감시 및
법 정책 제도 개선

* 이름

- 법의 목소리로 세상에 전달하기
- 지역 인권관련 NGO와 지역
법조계를 잇는 가교



* 배움

- 지역활동가, 시민, 청소년 대상
인권법률 교육
- 지역 후배 공익 변호사 양성

* 바라봄

- 바라보는 귀, 듣는 눈으로 들어
동행이 만난 활동가
- 후원자들의 이야기



CONTENTS

2019 동행 연간보고서

02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소개
02	인사말
03	구성원 소개
04	신입 구성원 인사
07	활동보고
07	주요 법률지원 사건 경과
11	동행 변론 낭독회 同辨相連
16	연대활동
16	공익변호사 현황조사연구 및 활동 매뉴얼 발간 사업
18	광주퀴어문화축제 인권침해감시단
19	광주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준) 발족
21	교육활동
21	하계실무수습 후기
23	통역인 법률용어교육
25	「오늘, 인권을 그리다」 전시회
28	「안희정 사건」 법적 쟁점 세미나
30	재정보고 및 이모저모
30	동행의 살림살이
31	동행의 이모저모
32	동행과 함께하는 사람들
32	후원회원 황신애 인터뷰
34	소연의 1년, 소아의 4년
36	이현우 변호사, 그 후
38	후원회원 한마디
39	회원가입 및 후원 신청
	기부자 명단

인사말

인간은 불가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이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집니다. 세계 역사도 크게는 자유와 권리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의 현실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부당한 핍박과 차별 속에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를 구성하고 견인하는 것은 결국 시민사회이기에 시민의 의지와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과 공익의 증진을 위해 2014년 이곳 광주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하 ‘동행’이라고 합니다)의 탄생입니다.

‘동행’은 법률과 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지원, 법률 및 정책 연구, 법률 교육서비스 제공, 법률자료 발간, 국내 외 연대활동 등의 사업을 합니다.

‘동행’은 그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을 비롯한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평등하고 수평적인 문화와 운영을 지향합니다. 타인에 공감하고 사회와 소통하면서 연대를 확장하고 법의 경계를 뛰어넘는 활동을 지향하며 앞을 실천합니다.

‘동행’은 권리보호와 권리실현의 주체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정은 관련단체나 기금, 일반시민의 기부금으로 충당합니다.

‘동행’은 창립 이래 조직과 재정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꾸준히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만 하더라도 장애인 성매매 피해 여성, 성적 소수자, 난민 이주민 아동을 위한 소송, 법률 교육 상담클리닉, 공익변호사 및 관련 인권단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연대활동 등 구체적 사업을 수행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동행’은 폭주하는 공익 인권 수요에 대비하고자 더 넓은 공간(사무실)을 마련하고 상근 변호사 숫자를 늘리고 상근 활동기도 총원하였습니다. 이로써 더 자주 더 가까이에서 더 적절하게 차별받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더 나은 법률적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동행’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행’이 좌절하지 않고 우리 사회 어두운 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대표 김용채

구성원 소개



대표 김용재 Eagle Wing

버림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날개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동행과 함께 모든 좌절을 이기고 새로운 힘으로 날개 쳐 하늘로 치솟을 것이다. 나는 권력을 잡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애송하는 시 한편을 남기는 것이 훨씬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소아 변호사(소화) Wit.ness Weaver

당사자를 바라보는 또 다른 증인으로서 재미를 잃지 않으면서 여기저기를 연결 하는 법이라는 언어를 배운 똑똑한 도구로 함께 있다가 기회가 되면 중요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함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일하는 것이 좋고 편해요.



권소연 변호사(소연) Adaptive Influencer

스스로 변화하면서 조직구성원에게 영향력 혹은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비에도 지지 않고 / 바람에도 지지 않고 ...
 동쪽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 찾아가 간호해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가 있으면 찾아가 베탄을 지어 나르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한다.
 북쪽에 싸움이나 소송이 일어나면 별 거 아니니 그만두라 말하고”



김민아 변호사(미나) Voice Painter

동행을 찾아오는 목소리를 담담하지만 뚜렷하게 그려내고 싶어요. 나만의 향기를 가진 사람. 그 향기를 은은하게 풍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차성희 활동가(세주) 아무도 아닌 자(No Name)

어느 누구도 될 수 있는.

신입 구성원 인사



차성희(세주) 인터뷰 (질문 : 김민아)

직함이 임팩트 있습니다. 직함의 뜻은 무엇인가요?

No Name! 어느 누구도 아닌 자. 현재는 이름이 없는, 하지만 누구든지 될 수 있는 자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유는?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당연 ‘여행’ 이요. 처음으로 혼자 여행한 태국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언어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백프로는 아니어도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자고 먹고 타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웠구요. 왜 여행을 시작했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우울할 때 스릴을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화요 주로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구요. 개인적으로 케빈 스페이시 팬이기도 하고 영화 ‘데이비드 게일’을 제일 재미있게 봤어요. 반전이 있는데 울컥하면서 여운이 길게 남았던 거 같아요. 세 번째는 ‘내(강조) 강아지 백희’ 외로울 때 의지가 되어 주는 존재예요. 네 번째는 커피요 특히 신맛!

내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엄청 많은데(고심고심)… 근력이 가장 필요해요 체력!!! 무엇을 잘 하는지, 무엇을 해야 안정될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아요. 동행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퇴근 후 취미생활도 가지고 싶고, 이 모든 걸 잘 해내려면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주로 제 성격이 평범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의미로요 사실 남들이 나에게 하는 말, 특히 좋은 말은 그대로 듣지 않아요. 남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좌지우지되기도 하는데 그건 저의 자존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를 생각할 때 호불호가 강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가지고 싶은 슈퍼파워 초능력은?

체력이 중요하니까 자동으로 운동이 되는 장치(일동 우와와~기발하다)

저의 입사선배로써(일동 하하) 그 동안 동행에서 일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동행에 입사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를 존중·배려 해주시고 있는 거 다 느껴지고 고마워요. 사실 그러면서 부담도 되긴 해요(음). 감정이 다소 다운될 때 민폐인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무엇보다 지금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하면서 일하고 싶어요.

마지막 공식질문입니다. 나에게 동행이란?

친 구.



신입 구성원 인사

김민아(Minaa) 인터뷰 (질문 : 권소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번에 동행 세 번째 상근변호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동행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나요

로스쿨 다닐 때, 동행에서 실무수습 하면서 동행을 알게 되었고 그 때 느낌이나 경험들이 강렬하게 남아서 계속 오고 싶었어요. 옆에서 이소아 변호사님을 지켜보니, 많은 일을 혼자서 풀어내시는 모습이 내가 막연하게 생각해온 것들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것 같아서 ‘아 여기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시험에 떨어져서 주춤했다고 했는데, 동행에 지원하기까지 어떤 고민을 했나요

저는 동행에서 일하려면, 굉장한 자격이 있어야 한달까, 요구하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는 아무래도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고요.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면서 ‘이런 제가 동행에 가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나의 신념과 자격 사이의 괴리를 느낀 거죠.

그럼에도 내가 제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관심이 가는 분야는 공익분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스페인 순례길을 30일 정도 걸었어요. 사실 걷던 중에 시험에 떨어진 것을 확인했었어요. 그때는 ‘내일 당장 내가 또 25키로를 걸을 수 있을까?’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눈을 뜨고 걷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느꼈어요. ‘아, 나는 떨어지기 위해 이곳을 왔구나, 떨어져도 계속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 왔구나.’ 라고. 물론 다시 현실에 돌아와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이곳까지 저를 걸어오게 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이 1년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동행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공익변호사인가요?

대학교 때 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니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제도가 있고, 제도의 정점에 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회는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또 결국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사회의 변화를 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과 사회의 경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변화하는 사회를 법이 담을 수 있는지, 기존에 있는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울할 때는 뭐하나요

제가 우울한 시기를 많이 겪었어서 이걸 확실히 답할 수 있어요. 저는 바닥을 쳐요. 어느 순간 누구한테도 의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닥을 쳐요.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

‘나는 어려운 시절이 오면,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문을 닫아걸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불안하던 삶이 오히려 견고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도 삶의 기반이 되어주는 것은

신입 구성원 인사

바로 그 감각이다. 생활에서는 멀어지지만 어쩌면 생에서 가장 견고하고 안정된 시간. 삶으로부터 상처받을 때 그 시간을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넨다.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고.’(김영민,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中)

내 삶에서 가장 반짝이는 순간은?

저는 지금인 것 같아요(오~~~). 지금까지 구상했던 꿈을 지금 이뤘으니까, 지금을 제일 반짝이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싶어요. 일을 하면서 적응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걱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보여주는 김민아 변호사)

“놀랍도록 편안하고 익숙하다. 불현 듯 다가오는 낯섦조차 솔깃한 긴장감 정도로 느껴진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익숙하도록 준비해놓으셨나 보다. 감사하고 겸손하도록”

내가 가장 재미있게 본 드라마나 책이 있다면?

저는 박민규 소설가의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요. 야구단이 성적이 안 좋아서 구단이 점점 존재감을 잃는데, 그럼에도 이들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팬클럽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항상 그런 것에 끌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가지지 않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이거 기질인가봐요. 저희 부모님이 시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시장에 따라다니면서 구석에서 그림 그리고 공부하고 했거든요. 엄마는 지금도 항상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미천하다고 얘기해요. (눈물을 보이는 김민아 변호사) 그런데 저는 그런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쓸모없고 가치 없을 수 있지만 어쩌면 제일 빛날 수도 있는. 그런 것에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미학적으로도 제일 추악한 것이 제일 아름다울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추악하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일 뿐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광주 내려오면서 부모님한테 편지 썼을 때도,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고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익변호사가 되겠다는 것도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 편지를 보고 이해 해주시더라고요. 제 기저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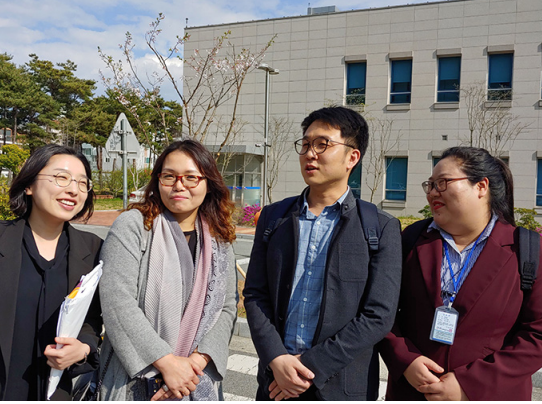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나만의 향기를 가진 사람. 그 향기를 은은하게 풍길 수 있는 사람. 자기만의 것을 갖는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동행에서의 다짐

절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일동 웃음). 동행에서 요새 가장 늦게 퇴근을 하니까, last checker가 되고 싶어요. 동행에 일이 많아서 뒤처리가 잘 되는지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제가 잘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요 법률지원 사건 경과



지적장애인 성분 창설 및 노동력 착취 사건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보훈)

긴 투쟁이었다.

이 재판은 다른 재판과 많이 달랐다고 생각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성분창설을 통해 피해자의 과거를 지워버린 행위와 잃어버린 가족의 분노와 슬픔에 귀를 기울였다. 피고의 악랄함을 말하는 판사의 목소리는 목이 메었고, 끝내 말문이 닫히는 고요의 시간이 찾아왔다.

감정의 홍수는 고요했고, 차분했다.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피해자 가족 모두 한동안 눈물로서 법원을 적셨다. 이 적막감과 눈물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무게였고, 누군가에게는 참았던 서러움의 분출이었다. 그 시간 눈물은 시간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정의는 구현된 것 같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감각이 놀라움과 흥분의 도가니로 터질 것 같은 환호를 외쳤다.

하지만 1심이 끝나고 우리가 모르던 물밑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다. 피담 흘리는 과정 끝에, 합의가 성사되었다. 피곤한 합의과정은 피해자의 특성을 이유로, 가족이 앞장섰다. 피가 물보다 진한 것처럼, 돈은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피눈물을 흘렸던 가족들조차 돈 앞에서는 불 앞의 불나방일 뿐이었다.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그리워한 뜨거웠던 심장은 어느덧 숫자로 가득 찬 머리가 대신했고……주요받는 금전을 통해 가족의 분노와 설움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합의 성사 후 피해자 가족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 사건은 끝났다.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우린 피해자를 위해 일했다 생각하지만, 냉정하게는 그렇지 않다. 피해자를 뒤로한 채 가족이 앞장서서 숫자에 콤마가 몇 개 찍혔는지, 앞자리 숫자는 무엇인지, 2번째 자리 숫자는 무엇인지 셈을 하고, 우리를 간보던 그 상황들을 난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물론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중요하나, 주객은 이미 전도되었다. 피해자의 특성을 이유로….

14년 여름 날 담배 값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합의했던 몇몇 피해자들을 기억한다. 오갈 곳 없는 사람을 돌보아주었다는 이유로 감형되었던 수많은 사건들도 기억한다. 이런 과정에서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처벌수위는 강해졌다. 하지만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써서 대항해 보지만, 돈이라는 구체적인 수단은 소수의 권리를 돈으로 환산하게 만들었다.

그렇다. 이 사건 역시 재판 결과가 다르지는 않았다. 합의 성사, 반성문 제출, 초범 등 갖가지 이유로 감형이 되었다. 다르게 보였지만,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기에, 투쟁이 지루하거나 외롭지는 않았고, 뜻깊은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생각한다.

You will never walk alone.

주요 법률지원 사건 경과

차낙난, 광주출입국 태국 최초 난민인정 그리고 그 후

동행에서 지원한 차낙난이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소개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난민 인정이 된 이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진지한 활동들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내년 목표 중 하나는 한국어 배우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많은데, 한국의 광주라는 도시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그 당시에 선택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바로 그 날, 당장 결정했어야 했어요. 한국의 경우 무비자로 90일을 머물 수 있는 반면, 홍콩은 15일밖에 머물 수 없어요. 필리핀은 인권운동가들에게는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광주에 오게 된 것은, 광주의 5·18기념재단이 제 친구인 인권운동가 ‘파이’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NDM도 5·18기념재단과 네트워크가 있었고요, 또 광주로 오게 된 한 이유는 전남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활동가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던 와중에 동행의 이소아, 권소연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래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캐나다나 프랑스로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한 적은 없나요?

한국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10개월 동안 알고 지냈던 한국 사람들이 많은 지원과 응원을 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집을 그리워하지 않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태국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한국사회가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태국에서는 한국이 독재체제를 밀어내고 민주주의 국가가 된 과정을 굉장히 우러러보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제가 10개월 동안 이곳에 살면서 느낀 건, 이곳에도 인권침해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인권 활동가로서 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극을 받아요.

지금 태국을 떠난 이유가 왕실모독죄 때문이잖아요. 차낙난씨는 왕실모독죄와 관련해서 NDM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태국은 정치적으로 격동의 시기를 겪어왔는데, 뭔가 나아가려고 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나아가려고 하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죠. 2014년 쿠데타가 가장 최근에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이 죽고 나서, 군부가 나라를 어느 정도 세팅하려는 목적으로 일어난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근 4년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고, 왕실모독죄로 기소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민간인들도 군 법정에서 서는 사례가 많아졌고요, 인권침해 외에도 가장 문제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학계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교수들도 체포된 상황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군부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 뒤인 2015년에 NDM이라는 단체를 공동설립 했습니다. 저

주요 법률지원 사건 경과

회는 독재와 군부쿠데타에 대항한 가두시위를 거의 매달 진행했고요. 대중에게 독재, 군부쿠데타, 인권, 왕실모독죄, 민주주의에 대해 강연 등을 통해 알리는 일도 했습니다. 그달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뉴스레터도 발행했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젊은 청년들이 NDM에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단체가 설립된 2015년 이전에는 주요 활동가들이 모두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대학교에 기반해서 활동했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단체가 확장됐어요. 학자들, 작가, 변호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조직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대학생들이나 배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대항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않나요? 한국의 경우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태국에서는 군부독재에 대항한 집회 같은 것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요?

교육수준에 따라 나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레드 셔츠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편이고, 옐로 셔츠는 왕실을 지지하는 편이에요. 옐로 셔츠가 중산층이라면 레드 셔츠는 풀뿌리 계급이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다시 나뉘는 편이에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대중시위가 진행됐고, 몇 백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당시 방콕 시내 한복판에서 시위 참가자 99명이 죽었어요. 누가 살인을 지시했는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아직도 많이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태국의 상황이 광주 상황과 비슷해서 다시금 놀라고 있는데요. 태국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의 국민들이, 광주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국에서도 당연한 난민 이슈가 논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난민과 세계 인권상황에 대해 한국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멘이 어디에 있는지, 예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은 가짜난민이고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침공하러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민족주의, 순혈주의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외국인들은 물론 한국인 본인들에게도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국이 최고이고, 외국인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예고가 센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오만한 것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면 그 어딘가에 외국인노동자들도 분명 존재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다른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웠으면 좋겠고요. 문화적 차이와 그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폭을 넓힌다면 더 나은 한국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올해 난민신청 한 후 많은 언론매체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난민인정이 된 후에도요. 그 기사를 다 읽었나요? 읽었다면 불편한 부분은 없었나요? 불편했다면 왜 불편했나요?

우선 한국 매체들이 저의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고 태국의 상황을 알릴 수 있음에 매우 감사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있는데요. 매체에서는 드라마를 팔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울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고요. 뭔가 이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디어가 난민에 대한 시선을 만들어내고 외모에 관한 고정관념을 양산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

주요 법률지원 사건 경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고도 느낍니다. 지금 상자 밖에 어떠한 현실이 있는지 보지 못하게 하고 난민의 다양성을 알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한겨레21에서 “민주천사 난민을 한국은 안아줄 수 있을까”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차라리 ‘민주 천사’가 더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여성 활동가는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죠. 이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인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지 않고 되려 감정적인 사람, 외모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 사람을 인간(human)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성(woman)으로 보는 거죠.

광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요? 동행에서 태국어를 영어로 통역하는 것을 부탁한 적이 있잖아요. 그 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이후에 차낙난 씨가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I feel I'm useful)”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10개월 동안 생산적인 일을 별로 하지 못 했고 어떤 일에 진지하게 임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은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소통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저번 기회에 제가 가진 언어적인 능력으로 동행의 일을 도울 수 있어서 제가 쓸모있게 느껴진 거죠. 집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스스로가 쓸모없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저는 난민이슈, 성소수자 이슈, 임신중단권 이슈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한국어를 못해서 지금 당장 일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는 광주의 단체들에서 자원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체들이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가고 일하고 있는지도 배울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동행이란?

동행이라는 이름이 ‘같이 걷는다’라는 뜻인지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그 이름의 뜻을 들었을 때 “와, 정말 딱 맞는 이름이다.”라고 생각했죠. 이소아, 권소연, 전민규, 이현우 변호사, 김지현 통역가 모두 난민신청 절차부터 난민인정단계까지 함께 해주어서 따뜻함을 느꼈고, 누군가가 옆에 있어준다는 생각에 정말 고맷거든요.(일동 박수)

제가 더 말하면 다들 울 것 같은데요. 울지마세요, 다들.(일동 웃음^^) 제가 광주에 처음 왔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들 함께 있었잖아요. 권소연 변호사는 첫 출근날이었고요. 그 날이 사실 광주에서 난민 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날이에요. 당시에 한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소아 변호사가 “이 케이스를 맡게 되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충분하고 강력한 증거가 있으니 이길 수 있다.”고 말해 주셨어요.(이소아 혼자말 하듯, 권소연과 잠시 속삭이며: 음...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지,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아무도 저를 돕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적어도 그 날, 그 말을 듣고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10개월 동안 같이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제가 필요할 때, 체류자격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때, 제 질문에 답해줄 사람, 안내해 줄 사람,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고요. 누군가가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고맙고 따뜻하잖아요. 때로 우린 싸우기도 했어요.(질문자들 웃음) 두 변호사 모두와 싸웠죠. 이소아 변호사는 저를 제주도에서 오라고 했고(체류기간 연장 때문에), 권소연 변호사는 5.18 아카데미 참여 중에 오라고 했잖아요.(난민 면접 때문에) 하지만 변호사님들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두 분을 좋아하고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동행변론 낭독회 同辯相連

낭독순서

1.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2.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3. 아동 출생신고 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
4. 국가보안법 사건 최후변론
5. 장애인 이동권 사건 준비서면
6. 태국 여성 인신매매 사건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7. 노동절 이주노동자 강제연행에 대한 성명서
8. 여수유흥주점 여성 사망 사건 피해자유족 대리인 의견서
9. 장애인활동지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0.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준비서면
11. 광주 제1회 쿼어문화제 성명서

- 광주여성민우회 봄봄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수인
 정다운 회원
 국가보안법 사건의 당사자 한광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김용목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울지기 채숙희
 광주민중의집 운영대
 언니네상담소 김희영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찬동
 권소연 상근변호사
 성소수자부모모임 나비

지난 2018. 11. 29. 동행은 광주의 멋진 활동가들과 동행변론 낭독회를 멋지게 치렀습니다. 그 현장을 살펴보실까요?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피해자 대리인 - 광주여성민우회 봄봄 후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겨우 첫 마디를 뱉다. 조명이 나를 향하고, 잠잠히 배경음악이 깔리고…。 경찰들과 싸우고, 급하게 잡힌 기자회견을 진행해본 터라 나름 뱃심 두둑한 편인데도 손이 바들바들 떨리며 긴장이 되서 앞이 깜깜해져버렸다. 그런데 참여자들이 숨소리 하나 내지 않은 채, 집중하고 있는 게 전해지며 마음이 진정이 되었다. 그들과 호흡하듯 나도 한 문장, 한 문장 조심스레 읽어 내려갔다.

“미리내 쌤, 우리 후원의 밤을 하는데 이번 컨셉을 동행과 함께 한 활동가들이, 함께 진행한 사건의 의견서를 낭독하는 식으로 할려고 해요. 미리내 쌤, 해주실꺼죠?”

며칠 전,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고, 나는 1초도 생각지 않고 “좋지요”라고 답했다. 에이… 생각해보니깐 좀 도도하게 거부도 하고, 맛있는 밥 한끼라도 얻어먹고 승낙했어야 했는데…아쉽^^

캠페인이 있는 날이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퇴근 전, 보내주신 의견서를 속으로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동행의 후원 장소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여러 가지 종류의 반찬과 밥, 국이 보이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니 소담스레 놓인 떡과 간식, 그리고 활동가들의 사진이 놓여 있는 게 보였다.

단체의 실무를 담당하는 활동가라 그런지 저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매우 소소해 보여 놓치기 쉽지만 저 안에 고스란히 담긴 고민과 수고가…오시는 분들 식사를 준비하며, 간단히 김밥과 샌드위치가 아니라 뷔페식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찬 하나, 하나를 조정하고 국의 종류를 결정하는 수고, 활동가들이 주인공이 된 사진을 선물처럼 주기 위해 사진을 모아, 한 장 한 장 고르며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출력해 예쁜 틀에 꽂는 그 과정의 수고를…

활동가들이 낭독해 왠지 더 몽클했던 변론 낭독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 민우회의 자랑 ‘시너페’의 공연을 울다 웃으며 듣고, 2부 행사로 이소아 변호사와 권소연 변호사가 자리에 섰다. ‘이 자리를 우리 엄마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소아 변호사가 오늘 이 자리의 감사 인사를 하는데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가 가끔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쓰는 일상들을 (엄마이자, 딸로, 그리고 변호사로 사는 삶이 녹아난) 보아와서인지 주책바가지인 나도 함께 눈물이 쏟아졌다.

“처음, 이소아 변호사가 광주로 내려와 공익변호사 단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나와 축하인사를 전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으며, 이소아 변호사를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올랐다. 그냥 인사만 나누던 그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던 때… (썸벅썸벅한 말투에 그녀가 실은 무서웠다고 이제서야 살짝쿵 고백을 ^^)

동행변론 낭독회 同辨相連

변호사로, 상담지원활동가로 역할을 나누어 지원을 하다 그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이야기 했고 그때부터 지난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성폭력 통념이 강력히 작동하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이미 피해자에게 불리한 싸움일 뿐 아니라, 피해자는 배심원들에게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 각 각 참여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우회에서는 피해자를 지지하고 재판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모았고 그 날, 재판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단 5명이 새벽까지 재판의 결과를 기다렸고, 그 자리에 이소아 변호사와 내가 함께 있었다.

재판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 피고인의 무죄. 터덜 터덜 법정에서 나와 내려오는 길. 아무도 어떤 이야기도 꺼낼 수 없었던 그 때, 여전히 울보인 이소아 변호사가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내려오던 그 날, 그 새벽의 공기. 아마도 그 때였던 것 같다. 그녀와 내가 진짜 ‘동료’가 된 건.

그런 시간들을 통과해 2018년 11월의 오늘이 되었구나 생각하니 내내 몽글한 마음들이 들었다. 그녀도, 나도, 그리고 권소연 변호사가 결합한 지금의 ‘동행’도 그때보다 더 단단해졌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 더 단단하게 고통 받는 이들의 곁에서 함께 동행할 것을 믿는다. 10년, 20년 후 동행 후원의 밤에도 그녀들과 함께 하길 바란다. 그 때도 울보인 이소아 변호사가 울고 있었음 좋겠고,^{^^} 씩씩한 권소연 변호사는 여전히 씩씩했으면 좋겠고, 그 옆에 많은 후배 변호사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 나는 그 옆에서 그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박수를 쳐주고 있다면 더 할 나위가 없겠다.

** 고통은 이야기될 수 있는가? 그 개인의 고통을 타인은 진정, 공감할 수 있는가? 가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묻는 때가 있다. 그 공감의 불가능성 앞에서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할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비로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온 체중을 실어 들으며 함께 그녀들과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행’이라는 말이 그래서 좋다.

‘동행’이 현재,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음이 감사하다.

동행과 계속 함께 묻고, 답을 구해갈 수 있길.



광주 제1회 퀴어문화제 성명서 – 성소수자부모모임 나비

〈광주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며,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반대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존재를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한편,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보편적 인권이 한 맥락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5·18을 경험한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10. 21.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에서 대구, 부산, 제주, 전주, 인천에 이어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에 ‘있는’ 성소수자 시민들이 ‘광주에서’ ‘동료 시민’으로 있음을 이 광주지역공동체로부터 확인받고 연대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5·18의 진상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로부터 확인을 받고 공감하고 연대하며 새로운 민주사회 공동체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행사로 광주는 다양한 동료시민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성소수자를 넘어서 이 주민, 난민, 아동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 어떤 존재도 따뜻하게 환대하며, 그 어느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도록 하는 진정한 민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광주의 일부 기독교 단체를 비롯한 보수 단체에서 퀴어축제를 비난하거나 집회를 반대하거나 행사에 대한 방해로 예고하고 있다. 어떠한 존재도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구별과 배제’가 차별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식이다. 아파트헤이트가 그랬고 2차대전 당시 독일 나치들이 그랬고 불과 100년도 안된 시점 참정권을 요구하던 여성들에 대한 억압에서 우리는 그런 구별 배제 혐오 억압을 보아왔다. 노동자라서 배제되기도 하고, 노인이라서 배제되기도 하고, 아이라서 배제되기도 하고, 이주민이라서 배제되기도 한다. 그리고 80년 광주에서는 단지 광주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동료 시민에서 배제되었던 경험을 우리는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들 각자는 서 있는 다양한 위치에 따라 언제든지 배제되고 차별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소수자’이다. 언제든지 소수자가 될 수 있는 나의 다름의 우리 사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나’의 다름을 받아들임으로서 ‘나’의 다름도 인정되는 것이 먼저이며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에 대해 서로가 연대하는 것이 절실하며,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고 이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다만 현실에서 이 당연한 인권을 제3자가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다양한 모습의 존재들을 부정하는 차별행위로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의 보편성을 함부로 재단하고 침해하는 모든 상황에 맞서, 그 차별의 벽을 허물어가는 그곳에 인권전문가집단으로서 함께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시민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광주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한다. 또한,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반대한다.

2018. 10.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동행은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법률대응팀으로 연대합니다.
민변의 성명을 인용하며

동행변론 낭독회 同辨相連

최정규 변호사(동행 후원회원) 후기

‘동행’을 처음 알게 된 건 2016년, 부당하게 장애등급이 변경된 장애인에 대한 법률구조의 현장에 이소아 변호사가 초대해주었기 때문이다. 동사무소에 가서 당사자를 만나고 향후 소송 진행을 상의하는 등 함께 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지만, ‘동행’의 구성원들이 법률구조현장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지키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당시 나는 2012년부터 시작했던 이주민 법률구조의 현장인 경기도 안산 원곡동을 4년 만에 떠나 안산 법원 앞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처음 시작할 때의 치열함과 열정을 잃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동행’이 초대한 그 법률구조의 현장은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동행’은 여러모로 부족한 ‘원곡’을 같은 뜻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의미인 ‘동지(同志)’로 불러주었고, 그 말이 큰 힘이 되었다.

앞에서 소개한 장애등급변경을 당한 피해자는 꾸준히 받던 장애연금 등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는 등 법률구조의 현장은 항상 치열하다. 그 치열한 현장을 ‘동행’의 구성원들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2018 동행 후원의 밤’을 통해 그 답을 찾게 되었다. 그건 바로 법률구조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현장 활동가분들이 ‘동행’과 함께 하기 때문이 아닐까?

현장 활동가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와 변론하는 낭독시간(동행 변론 낭독회)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큰 울림이 있었다. 당사자의 치열한 상황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의 공허한 메아리가 난무하는 탁상행정의 밀실과는 차원이 다른 ‘동행’의 울림들은 외견상 견고해 보이지만 실질은 참으로 어설픈 ‘법률과 판례’를 깨고 결국 우리 사회를 좀 더 상식에 부합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동행’이 현장 활동가분들과 만들어 갈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나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준 ‘2018 동행 후원의 밤’을 열심히 준비한 ‘동행’ 구성원들과 활동가분들, 그리고 멋진 공연을 보여 준 ‘광주여성민우회 시나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동행’ 이소아(이 동지), 권소연(권 동지) 화이팅!!!

공익변호사 현황조사연구 및 활동 매뉴얼 발간 사업

사업소개



이제는 100명 가량 되는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현황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공익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가지 소회들,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 기록으로 남기고 이후 활동의 장벽을 허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그리하여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늘 있었습니다.

동행이 공익법조모임 나우의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공익변호사 현황에 대해 연구하고 후배 공익변호사들을 위한 활동매뉴얼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여러 단위에서 발표회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일정

1차 회의

일시 및 장소 2018. 9. 7. 16:00~18:00 / 사단법인 두루 10층 2호 회의실

참석 강정은, 권소연, 배영근, 엄선희, 이소아, 최초록

논의사항 공변매뉴얼 필요성,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필요성, 매뉴얼 내용 설계(단체 설립 및 운영, 변호사로서 세무·회계·법률행정실무), 설문지 내용 검토, 역할 분담 및 향후일정 계획

2차 회의

일시 및 장소 2018. 9. 28. 14:00~15:00 / 사단법인 두루 10층 8호 회의실(인터넷 화상 회의)

참석 강정은, 권소연, 배영근, 엄선희, 이소아, 최초록

논의사항 인터뷰 일정 계획, 연락망 개설, 코딩진행상황, 역할 분담 및 향후 일정 계획

3차 회의

일시 및 장소 2018. 12. 10. 16:00~18:00 / 사단법인 두루 8층 회의실

참석 강정은, 권소연, 이소아, 최초록

논의사항 타임라인 [설문배포(12월), 응답취합(1월), 코딩작업 및 원고작성(2월), FG(3~4월)], 역할 분담(매뉴얼 작성, 설문조사 배포 및 코딩업체 연락, 인터뷰 일정)

공익변호사 현황조사연구 및 활동 매뉴얼 발간 사업

4차 회의

일시 및 장소	2019. 3. 4. 14:00~16:00 / 사단법인 두루 10층 3호 회의실
참석	강정은, 권소연, 마한얼, 배영근, 엄선희, 이소아, 최초록
논의사항	진행관련보고, 실태조사 방향 및 일정 수정(해외입법례 리서치), 역할분담(논문, 라운드테이블 회의자료, 해외문헌연구, 전자소송 분야), 설문조사 분석논의(74명 회신 중), FGI 일정 공유, 향후 일정 계획

5차 회의

일시 및 장소	2019. 4. 10. 15:00~17:00 / 사단법인 두루 8층 회의실
참석	강정은, 엄선희, 최초록, 이소아, 권소연, 배영근
논의사항	주관식 응답의 카테고리화 작업 관련 역할 분담, 설문지 전체 내용 검토(항목 간 관계 확인), FGI 일정 공유, 향후 일정 계획

6차 회의

일시 및 장소	2019. 5. 16. 14:00~18:00 / 고래집
참석	강정은, 권소연, 마한얼, 배영근, 엄선희, 이소아, 최초록
논의사항	방향성 정비, 예산마련, 공익변호사 행정실무 초안 논의, 설문조사 결과 공유, 해외사례연구, 매뉴얼 상세 목차구성

7차 회의

일시 및 장소	2019. 6. 28. 13:30~16:00 / 사단법인 두루 10층 5호 회의실
참석	강정은, 김민아, 마한얼, 배영근, 엄선희, 이소아, 최초록
논의사항	중간회계보고, 정책간담회일정 계획, 매뉴얼 초고 검토, 원고마감 기한 확정

광주퀴어문화축제 인권침해감시단



김성진 변호사(동행 후원회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모든 인간에 대한 혐오입니다. 광주에서 2018. 10. 21. 성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Queer Culture Festival)가 열렸습니다. 축제에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등 앞서 진행되었던 축제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의 방해가 있었고, 광주에서도 방해가 예상되었습니다.

동행,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법률가들과 인권단체 활동가, 시민들은 인권감시단을 꾸려 방해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집회 보장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인권감시단은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사전 논의하였습니다. 방해세력은 축제 참가자들의 출입을 막거나 참가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고, 축제 참가자들의 행진을 못하도록 방해하여 여러 곳에서 충돌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큰 충돌은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인권감시단 활동 후 남는 고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똑같은 사람이며 시민입니다. 그들은 집회나 축제를 할 보편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수자인 이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므로 집회권을 더욱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회를 방해한 세력들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집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행위는 성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어떤 면에서 소수자입니다. 만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묵인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에 대한 혐오가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반대자들이 한 행위는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 집회 방해죄에 해당하거나, 형법상 모욕, 폭행, 상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활동가들은 변호사들이 인권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광주에서 변호사들을 현장에서 본 것은 오래간만인 것 같다. 덕분에 큰 충돌 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라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준) 발족



박인동 변호사(동행 후원회원)

지난 2019. 3. 24.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준)가 출범하였다.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준) 출범에 큰 역할을 해온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과 출범식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참석한 사람들의 다양한 소회와 각오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주노동자는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이웃이 되어가고 있다. 2018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수는 전문인력¹⁾과 단순기능인력²⁾ 노동자를 포함하여 2018. 3. 31. 기준 582,535명이다. 위 이주노동자 수는 미등록 노동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미등록 상태가 된 이주노동자와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포함하여 미등록 상태의 전체 이주노동자는 대략 21만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인간과 시민이 아니라 관리·통제·처분의 대상인 노동력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용허가제와 같은 정책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많은 이주노동자도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위험환경 노출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이주노동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내기 위한 연대체인 광주·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가 출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2018년 12월 광주·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준)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공동모임을 갖기로 한 바 있다. 공동모임에 동의한 여러 단체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모임의 정례화·규정 제정, 2019년 공동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네트워크 참여 단체 사업 공유·소속 단체들의 공동사업을 통한 네트워크(준) 활성화를 목적으로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준)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 큰 역할을 해왔다.

- 1) 전문인력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행동(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임
- 2) 단순기능인력은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산업연수(D-3), 취업관리(F-14) 체류자격임

광주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준) 발족

이제 시작이다. 향후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준)가 광주·전남 지역 이주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울타리가 되었으면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는 그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근본적인 정책과 제도의 개선(고용허가제와 출입국 관리법 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계실무수습 후기

“노동자를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김호정(전남대 법전원)

대학 생활 중 스위스에서 인턴으로 6개월간 일하며 짧게나마 이방인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타국에서 차별을 겪었던 경험은 한국에 돌아와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자원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취업규칙의 존재도 몰랐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내 성추행을 겪었음에도 회사의 요구에 따라 합의하는 동료들을 두 차례나 무력하게 지켜보며, 법조인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실무수습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은 일반 소송과 다른 공익 소송에서 요구되는 변호인의 자세였습니다. 실무수습기간 동안 기록을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리를 고민했던 소송의 당사자들은 모두 우리 사회에서 약자에 해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장애인, 미성년자, 난민과 같이 그 누구보다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한 호혜적 시선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소송대리인이 되어 한 개인의 삶에 닥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공익전담 변호사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행이 다른 법률사무소와 다른 점은 시민단체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무수습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하며, 다른 장애인관련 단체, 난민 단체들이 협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점들이 모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선을 그려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과제로 했던 사건들 중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던 신안군의 염전노예사건을 통해 인신매매 죄의 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난민지위 인정현황의 현위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소송들은 모두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지역에서 일하는 공익전담변호사들의 역할이 크고 중요함을 체감했습니다.

개강을 하고 학교에 돌아가게 되면, 동행에서 보았던 장애인복지법,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등과 같은 법률은 아마 다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무수습을 하며 해당 법률의 조문을 찾아보고 관련 판례를 검색해보며, 친절한 교과서 없이도 법률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법들을 깊이 이해하고 충분히 습득해야, 다른 기타 법률 또한 빠르게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토대와 소양을 갖춘 후, 변호사가 된다면 처음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했던 동기를 잊지 않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역을 막론하고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삶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한 명의 노동자가 되어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계실무수습 후기

“쓸모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조국환(전남대 법전원)

뇌리에 깊이 박힌 순간들이 있었다. 변호사님들이 사건을 당사자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였다. 이야기하시는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기록을 검토하고 그에 필요한 주장을 써보기까지 하였는데도, 나는 당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기억을 하지 못했다. 상황이나 쟁점은 기억하면서도 정작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다. 법률문제가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럼에도 실제로 과제를 앞에 두니 일만 보였지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일의 ‘왜’에 해당되는 부분을 잊은, 쉽게 범할 수 있으나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내담자 분을 처음 만났을 때였다. 예상했던 것보다 내담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놀랐고,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제공될 수 있을 만한 적당한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놀랐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필요를 제공하는 일에 대하여 너무도 막연하게,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나의 무지에서 비롯됐음을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피해자에게 순결함을 강요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오류가 내 안에 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동행에 의뢰하는 사람들은 이럴 것이라는 막연한, 무지에서 비롯된 예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그가 받을 수 있을 도움은 이 정도면 된다는 한계선, 즉 도움을 주고받는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에서 오는 교만함이 내재하고 있는 위선적인 내면을 보게 되어 스스로 견디기 어려웠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는 것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도와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채 돕는 사람의 입장과 생각에 근거하여 무엇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누군가를 돕는 이타적인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모순 같지만 돕는 자의 이기적임이 아닐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동행에서의 실무수습은 돕는 자의 교만함 또는 적당한 보조를 통한 자기만족을 경계하는 것,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짧게나마 보고, 고민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딱히 눈에 보일만한 것들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다짐도 하나 했다. 쓸모 있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린다.

통역인 법률용어교육



정다운 변호사(동행 후원회원)

동행이 지난 가을 진행했던 “통역인 법률용어교육”은, 외국인들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 다수 진행되는 안산 등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원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해오는 사업이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동행 이전에 한 차례도 시도된 바 없던 것입니다. 우리지역도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하면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고, 실제로 지산동에 소재한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외국인들을 만나는 일은 더 이상 이채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다른 문화와 법제에서 생활하던 외국인에게 한국말은 물론 한국법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적 지위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한국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한국인과는 전혀 다른 지위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인 외국인은 절차 안에서 자신이 가지는 권리를 안내받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실질적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심한 경우 자신이 한 말이 발화 의도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지경에 놓입니다. 통역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측의 목소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단순한 봉사활동의 의지만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양국의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사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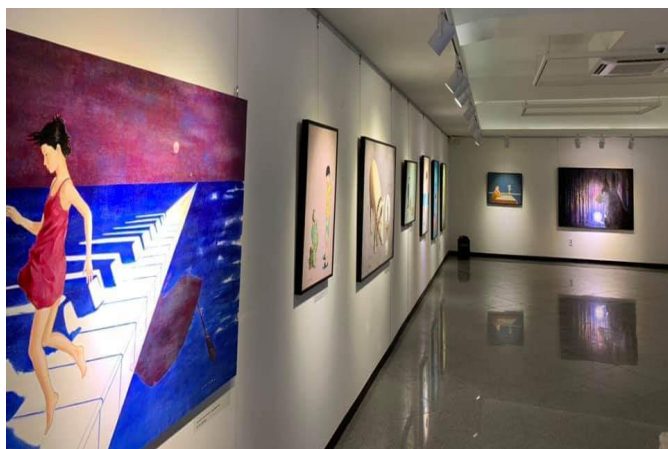
동행이 통역인을 위한 법률용어교육을 기획한 것도 위와 같은 고민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을 위한 소송지원 경험이 풍부한 김정희, 박인동변호사님(이상 법무법인 지음)과 무더위가 기승이던 8월 열린 첫 번째 기획회의에서 동행으로부터 교육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후 강의안과 강의자료를 제작하며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 예정인 통역인들이 4일 동안 계속된 강의에 열심히 참석하여 주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변호사로서는 어렵고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소개하려던 까닭에 친절하지 못한 설명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강의의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오려 노력하시는 통역인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강의가 종료된 이후 통역인들과 변호사들이 각자 실무에서 경험하였던 문제점들을 공유하며 해결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는데, 서로에게 좋은 공부거리로 남았습니다.

통역인 법률용어교육

한국의 형사, 민사, 가사 소송의 일반개념과 개괄적인 절차를 소개한 뒤, 모의재판을 통해 그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는 분명히 의미 있는 것이었지만, 총 8시간(매일 2시간씩 4일)동안 진행된 교육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통역인들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자인합니다. 또한 강의에 참석한 통역인들 사이에 한국법제에 대한 이해수준이 큰 차이가 있었던 바, 향후 통역인을 위한 법률교육이 다시 실시된다면, 교육시간을 조정하고 최소한 법정통역의 경험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여 강의내용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획과 뜨거운 열정으로 항상 새로운 시도를 “일삼아 온” 동행의 이번 행보에 지역민으로서 깊은 감사와 지지를 보냅니다.

「오늘, 인권을 그리다」 전시회



「오늘, 인권을 그리다」 전시회

작가 : 이선일
기획 : 인권연구소 '창'



「오늘, 인권을 그리다」 전시회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거울

류은숙 활동가 강연 녹취록

참고 : 아래 글은 ‘오늘, 인권을 그리다’ 광주 전시회 첫날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활동가의 전시기획 배경과 관련한 소개를 녹취록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중간의 괄호 부분은 설명을 위해 옮긴이가 첨가하거나 지문형식으로 넣은 것이며 글 읽기의 편의를 위해 문체를 약간 변경하였습니다.

강연 : 류은숙 (옮긴이 : 이소아)

그림 : ‘관계의 숲을 밝히다’ 이선일, 2018

광주에는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저의 학창시절에 오월이 오면 망월동 묘역 참배할 때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인권과 관련된 기획으로(이 전시 기획으로) 광주에 오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역사라는 것이 잔인한 것이, 역사는 어떤 사실의 박제화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광주 시민들이기에 더 잘 아시겠지만, 수십 년 동안 술한 사람들이 광주 학살 5·18 진상규명을 위해 몸을 불사르고 했음에도, 그것이(5·18 희생자들이 겪은 인권침해, 민주화운동이라는 점…) 사실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온갖 난동(거짓 선동과 혐오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에 처해버린 지금의 현실을 보면 역사는 박제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역사가 박제화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 ‘진상’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의 진상을 밝히는 것인데, 우리가 밝혀야 할 것은 단지 그런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진실’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진실규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들(혐오세력, 가짜뉴스 생산자들)이 하려고 하는 박제화를 거부할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박제화하려는 것(그 사실과 나와 관계를 살피지 않고 그냥 과거의 사실로만 놔두는)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상규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와의 연루성, 관계성을 밝히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실규명이다’라는 생각을 광주에 오면서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전시의 큰 주제는 차별과 혐오에 관한 것이예요. 저희(인권연구소 창)가 인권단체다 보니 차별 반대를 계속 외쳐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차별과 관련한 가장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기가 막합니다. 김대중 정권의 100대 공약사항 중에 ‘인권법 제정, 국가인권위 설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법이 아니예요. 위원회 기구 설치와 관련한 법이지요. 인권법에 해당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에 (인권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어요.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은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 되었어요. 그 이유는 혐오세력의 반대 때문인데요. 그 세력은 지금 5.18에 대해 망언을 서슴지 않는 그 세력과 딱 겹쳐요.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들이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끈질기게 막아왔기 때문에,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이를 이어 받은 노무현 정권에서 발의된 법인데, 그렇게 오랜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권을 그리다」 전시회

한국 사회가 좋아진 것도 많지만, 여러 가지로 나빠진 것 중 대표적인 것이 혐오입니다. ‘타인’을 미워하는 데, 타인 중에서도 나보다 약자이고 처지가 더 힘들며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미워합니다’. 그런 약자가 나보다 위계에서 밑에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자기만족을 얻는 것, 그게 혐오예요. 미워할만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정당한 분노라고 하잖아요. 정당하게 분노할만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만만한 사람을 골라서 미워하고 괴롭히려는 것이 혐오예요.

혹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지금 이 책이 일본이나 중국에서 번역 출판되어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저자인 김지영 작가가 각국 현지에서 독자와의 대화를 한 후일담을 들어 보면, 다른 국가의 여성들도 그 소설 내용을 대체로 공감하는데 도무지 이해 못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객석에서 대답 : 맘충?) 네, 맞아요. 그 소설에 나오는 단어가 맘충이에요.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를 출산한 주인공이 아이 데리고 공원 벤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으면 ‘맘충’이라고 한 대요. 전 세계 어디에 엄마한테 별레 ‘충’자 붙이는 나라가 있겠어요?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입에 담기 뭐하지만) 지역에서 오면 지방충, 노인들에 대해 틀딱충, 저처럼 사회정의에 대해 이야기 하려들면 선비충, 설명충, 충, 충, 충... 온갖 ‘충’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저희가 이 전시회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인권 연구하고 데모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혐오 문제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적 기반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그런 ‘충’자를 맨날 인터넷과 SNS에서 ‘충충충충’ 거리며 대화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권 관련한 법이나 제도에 공감을 하고, (그 법제도를) 찬성하는 정치적 책임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 굉장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폭력 문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큰 잘못을 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국가폭력 직접 행위자들은 수괴부터 해서 급에 따라 책임이 나눠졌지요. 하지만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이 그 잘못을 눈감아준 것, 묵인해준 것. 그 책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지요. 그런 문화적 용납, 문화적 침묵이 그런 폭력들을 언제든지 재생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런 고민을 저희가 계속 갖고 있다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중에서 화가가 있으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자고 한 거예요. 화가가 먼저 간단한 구상 (이걸 에스키스라고 한다고 해요)을 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연구소 활동가들이 주말마다 모여서 하루종일 토론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화가의 에스키스가 그대로 간 것도 있지만 그림의 방향이 바뀌기도 한 것이 있어요.

이 그림들은 차별과 혐오를 바라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전시회가 일종의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는 나를 뒤에서 바라보는 거죠. 내가 혐오의 눈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인을 바라보는 나를 뒤에서 바라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내 뒷모습이 보이죠. 내가 어떤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거울효과를 노리고 이 전시회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런 구상과 기획과정을 통해서 작년 연말에 전시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전시는 아직 미완이에요. 화가는 그림을 더 그리기로 했고, 연구활동가들은 그 그림에 맞는 글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림과 글이 다 완성되면 시화집을 내기로 했어요. (그때도 많은 관심을) 그림은 언제까지나 본인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봐주시길 바래요.

안희정 사건 법적 쟁점 세미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쟁점 분석
피해자 대리인단
초청 간담회
 2019년 2월 28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지방변호사회 6층 대회의실

**1부 - 발제 : 안희정 사건 1, 2심 판결을 통해 본
 위력에 의한 성폭력**
 발제자 : 정혜선 변호사
 (민수사회위원장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안희정 사건 피해자 대리인)

**2부 - 토크콘서트 : 재판과정 비하인드 스토리와
 2심 판결의 의미 돌아보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권소민 변호사,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몸심)

주최: 민수사회위원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정의전회, 성평등교육공동체 길, 유쾌한 센터로,
 공익변호사의 함께하는 동행



이소아 변호사

발제를 한 정혜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올해 13년차)는 김지은씨 고소대리부터 항소심까지 모든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한 변호사입니다. 세차례의 검찰 참고인 조사에 모두 참석하고 김지은씨 핸드폰 디지털포렌식한 모든 자료를 보았고 비공개로 진행되어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모든 재판과정(특히 직전 수행비서들의 증언들이 주요 증인신문인데 이것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언론에 그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알려질 수 없었음)을 지켜본 분이지요.

이 사건은 직전 수행비서들의 일관된 정황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업무상위력간음 사건들과 다르게 유죄가 인정되기 쉬운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이냐, 김지은씨가 호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언론(정확히 말하면 피고인 측이 언론에 흘린 것이지만요)에서 계속 흘렸고, 많은 법조인들이 그럴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모든 언론보도와 소문들은 과연 그대로 소문이었습니까. 1심 판결조차 안희정과 김지은씨는 어떠한 관계도 아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죄형법정주의가 헌법의 대원칙임에도 법률에도 없는) 거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다시피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치 yes means yes, no means no rule 관련된 입법이 제정되어야지만 처벌될 수 있는 것처럼 판결하였지요. 그렇지만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 간음으로 기소되고 유죄가 인정된 다른 사건들과 다르지 않은 사건이고, 그런 입법이 없어도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대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기도 남은 사건이다...는 점이 '진실'입니다.

안희정 사건 법적 쟁점 세미나

그래서 제게는 무척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기록을 보지 않았으니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계속 굳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언론에서 흘리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유죄가 될 수 없겠구나’ 하면서... 당사자를 의심하기도 했으니까요(그 마음을 내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를 의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죄스러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결과가 많은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에 간절히 유죄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여러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던 중에 2심 판결이 났습니다. 2심 판결문을 보지 않았기에, 저조차도 2심 재판부가 뭔가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여 1심을 파기한 것인가 하는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읽자니 너~무 길고, 다른 여성 활동가들도 너~무 궁금해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자꾸 물어오고, 무엇보다도 이 사안을 민변 광주전남지부 회원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기에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지요. 세미나를 들으면서, 또 요즘 들어 여러가지로 드는 생각(용산 사건 재판기록을 보면서)이네요. 진실은 납작한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있고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는구나... 싶습니다. ‘진실을 찾고 밝히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시각과 위치를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갈수록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당일에 이렇게 많은 활동가들이 올 것이라고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동행은 민변 광주전남지부 ‘다름에 관한 연구모임’과 함께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시각들과 위치들에 대한 공부를 해가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시도들 제안해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성과표

(4기 : 2018.01.~2018.12.)

(단위: 원)

계정과목	수입
사업수익	110,488,128
기부금	110,066,129
정기기부금	66,644,544
특별기부금	43,421,585
지원금	148,000
기타수입	273,999
사업외 수익	2,063,447
총 수입	112,551,575

계정과목	지출
사업비용	95,351,880
사업운영비	3,628,010
연구사업비	137,000
연대사업비	289,020
조직및회원사업비	503,340
출판홍보사업	400,000
교육사업	2,298,650
법률사무소비용	114,570
법률지원사업비용	93,700
운영비(법률)	20,870
관리운영비	91,609,300
인건비	83,330,280
운영비	6,673,040
회원관리비	1,605,980
사업외 비용	63,720
총 지출	95,415,600
당기 순자산의 증(감)	17,135,975

동행의 이모저모

2018년

8월

- 14일 난민인권사랑방
- 27일 1. 전문가와 함께 나누는 난민 이야기
2. 상근지역강화 엄기호 강연
3. 하계실무수습 마감

10월

- 17일 난민인권네트워크
- 18일 이주노동자 불법파견수사 릴레이 1인 시위
- 21일~25일 광주퀴어문화축제
- 22일 광주 장덕고 교육 봉사 법과정치
- 29일 난민법률실무교육

11월

- 03일 이현우 변호사 세이 굿바이
- 09일 난민신청 인정 - 차녹난
- 26일 통역인 법률용어 교육
- 27일 사랑샘재단 청년변호사상 시상
- 29일 동행변론 낭독회

12월

- 13일 차성희 입사
- 13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설립 토론회
- 21일 동행 송년회
- 26일 뇌전증 장애등급변경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9년

1월

- 26일 최희용 세무사 비영리단체 회계교육
- 31일 정기총회

2월

- 18일 「오늘, 인권을 그리다」 광주 전시회
이선일 작가
- 28일 안희정 사건 법적 쟁점 세미나

3월

- 24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 네트워크
준비모임 발족식

4월

- 04일 이주민 법률상담 시작
- 10일 희망법 FGI 방문

5월

- 13일 김민아 입사 및 인터뷰
- 16일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회의
- 18일 강제동원 대리인단 회의
- 21일 광산서간담회
- 31일 이주사례연구모임

6월

- 04일 정기운영회의 사무실 이전
- 10일 동행 워크숍
- 12일 아동TF모임

동행과 함께하는 사람들

후원회원 황신애 인터뷰



꼭 맞는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해 며칠도 고민하신다는 이 분. 그런데 저는 며칠을 고민했지만, 아름다운 이 분을 꼭 맞게 소개하기 위한 어떤 단어도 찾을 수가 없네요. 시인이자 작가이신 동행의 후원자 황신애님을 2018. 7. 11. 수요일에 동행이 만났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내 소개가 뭐 할게 있나요. 말로 하는게 어렵네요. (해사한 웃음) 제 이름은 황신애입니다. 54세, 다발성 경화증, 15년째 투병, 4년 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함, 그래서 살아남, 그전에 죽어 있었음.

글은 앞으로도 계속 쓰실 거죠(꼭 쓰셔야 한다는 바램을 담아)?

써야죠, 글을 안쓰고 누워있으면 시간이 너무 안가요, 같이 누워있는거라도 글 쓴다고 생각하고 누워있으면 금방 지나가요, 떠오르지 않는 단어를 생각한다고 누워있으면 금방 지나가요.

소송의 진행이 너무 느려서, 올해 초에는 그만 센터에 들어가시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황신애님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위헌제청결정 사건의 당사자다. 위헌제청결정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년 6월에 결정하였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너무 침체될 때가 있어, 막 지치고, 아 이제 그만하자, 지난 겨울에도 모 재단 때문에 너무나 신경을 써가지고, 그 감정이 막 기분도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또 3,4월에 내 옆에 사람들이 힘든걸 보게 되었어, 그러면서 아 현실이구나, 몇 달동안 모 재단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마주쳤던 벽, 그런걸 보니까 아 이게 내 현실이구나..., 내가 글을 쓰고 하는 게 내 이상, 내 꿈(일 뿐이구나), 버틴다고 해도 2~3년뿐인데 결국... 버티는 것뿐이잖아 그것뿐일 것 같았어, 이리다 화장실도 조절이 안 될 것 같고 만약 그 정도면 요양사가 사워도 못 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가야하는 물건, 물체?, 마지막 가는 단계, 그 단계가 2~3년 길면 5년 후에 올건데... 그러면 내가 더 안 좋은 모습 보이기 전에 시설로 가야하지 않을까? 그때 나는 그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했어, 식구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 줄까봐, 그래서 시설로 가서 수동적인 나를 인정을 하고, 그냥 해주는 대로 (사는 것), 그런 걸 깊이 생각했지, 내가 버틴다고 해도, 버틴다는 건 교만한 거지, 내가 뭔데 버틸 거예요, 그냥 있는 거지,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버틴다는 건 교만한거 같아, 그래서 내가 없어야 해 내가 없는 시점에서 출발하는 것, 그래서 5월 말일 가려고, 장성에 있는 곳에 갈려고 했었지요, 마음도 먹고 준비도 다 했었어, 초파일 지나고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5월에 수녀님이 성모님께 올리는 글을 한번 써달라, 성모성월 행사 때 시낭독을 해달라고 하시는거야, 어떤 sign처럼, 그러면서 또 감정이 5월이 지나니까 또 아무렇지 않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수녀님이 한 두번 오시면,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써 놓고 읽어보면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멎히니까, 자꾸 감정적이 되고 해서 내가 못 할꺼 같다고 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수필을 써볼까, 시가 아닌 에세이를 써보자, 내 이야기를 짧게 몇 편으로 써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수필에 빠져서, 6월부터 지금까지 수필에 빠져서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상을 타면 신애씨가 수필도 인정 받았구나 그렇게 축하해주세요.(웃음)

후원회원 황신애 인터뷰

(무식한 질문일 수 있으나, 용기를 내서) 시나 글 그림이 어떤 면에서 재밌나요?

글을 파고 있으니깐 시간이 너무 아까워. 24시간이 너무 아깝고, 한 단어를 며칠 동안 생각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단어는 이게 아닌데, 오늘도 제목을 ‘카누가 그려진 달력’ 그게 카누가 접선이라고 해야 하나. 접선? 카누가 물로 나가는 그 순간, 그 단어가 지금 한 달 동안 생각이 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생각이 안나. 그냥 누워 있으면 현실적인 생각에만 매어 있는데 글을 쓰면 그 단어들을 생각하는 거지. 컴퓨터로도 국어사전을 찾아 보는거죠. 파고 들어가서 그래도 모르면 기다리다, 기다리다 어느 순간에 나올 수 있어. 그게 재밌어 시가. 그림은 그릴 때 내가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하루 종일, 호랑이를 그린다고 하면 눈빛을 그리는데 하루 종일, 내가 허리를 숙이고 있기는 힘들지만 하루 종일 그거에 매달려 있어요. 재미있어요.

‘모로’에 있는 시 중에 ‘액땀’이라는 시가 있어요. “너의 액땀이라는 것이 기분이 좋아.”라고 쓰신 부분이 있는데, 그 액땀이라는 건 억울하지 않나요?

내가 방패라면, 어느 순간엔 내가 방패인 것 같아. 내가 아파서라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스스로 철들고, 스스로 잘하고 아무튼 내가 꼭 필요한 방패인 것 같아. 관찰아. 상관없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방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못 버틸 것 같아. 이 통증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고통을 못 버틸 것 같아.

그 버티는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랑, 난 사랑해. 식구도 좋아하는 사람도, 나도 모르는 내 속 안에 있는 그것. 안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건 사랑이라고 생각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거?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마음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질병을 비켜나갈 수는 없을꺼 같아. 그런데 마음이 평화로우면, 중심만 잘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독한 것보다 더 독한 평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간절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며칠 전에 이소아 변호사님이 생계형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죠? 나는 생계형 작가 꿈이야. 그것이 꿈. 생계형 작가. 아직 생계가 안 되고 있으니. 글을 써서 생계를 할 수 있는, 수급자가 아닌 생계형 작가가 꿈이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황신애’에게 동행이란?

동행이란 친구. 같이 가야할 친구.

내가 힘이 없으면 나에게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버티고 조금 더 바뀐 모습을 보여주면 동행에 또 힘이 되지 않을까. 내가 연료 같은? 진짜 연료일 수는 없지만 (웃음)

소연의 1년

1. 지역에서 공익전업변호사를 한다는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돌을 던져야 한다는 것

지역은 공익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특히 더 부족합니다. 저는 그나마 이미 3년 동안 광주에서 동행의 이름을 널리 알린 이소아 변호사 덕분에 온실 속에서 활동할 수 있었지만, “자, 이제 네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봐”라는 귀 달린 벽에 마주할 때는 숨이 턱 막힐 때도 많습니다. 신입 공익변호사로서 저는 발을 일구는 단계 정도에 와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발을 일구고 건물까지 세우는 공익변호사 선배님들을 뵈면 존경스러우면서 동시에 두렵습니다. 제가 발만 일구다 포기하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장 큰 동력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주가 어떠한 분위기를 가진 지역이라고 해서, 법조계가 어떠한 분위기를 가진 조직이라고 해서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배님들이 그러셨듯 저도 광주의 인권바닥에 꾸준히 돌을 던지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역시 우리는 함께할수록 강해진다는 것이고, 인권은 연결될수록 강하다는 것입니다.

동행에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대표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항상 제 어깨에 부담을 지우고 있지만 그렇기에 제 말과 서면에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당사자를 법률지원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지역법조에 꾸준히 메시지를 던지고 울림을 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만 된다면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2. 동행에서 일한다는 것 - 많은 연대단체들의 기대와 응원

지난 2월에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을 모시고 판결문 분석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변호사들보다 동행과 연을 맺고 있는 여성단체 활동가분들이 훨씬 많이 오셨습니다. 6-70분 가까이 되는 활동가들과 함께하니 다같이 연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두 분 다가와 “고마워요, 동행 덕분에 이런 것도 들어보고”, “광주에 동행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라고 해주셨을 때에는 콧대가 하늘을 찌를 뻔도 했습니다.

광주 제1회 퀴어퍼레이드 때도 비슷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퍼레이드 참가자들과 연대단체들이 “변호사님들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계셔서 파란 조끼만 보여도 힘이 됐다.”며 따뜻한 커피를 한사코 쥐어주고 가실 때에는, 제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겠다고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광주에 공익변호사 단체는 동행이 유일합니다. 광주 법조와 광주 시민단체 사이에서 다들 ‘매의 눈’으로 동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대와 응원이 오롯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적절한 부담과 긴장을 담아 광주에서 용기와 지혜를 엮는 일이 제가 앞으로 계속 해나가고자 하는 일입니다.

소연의 1년, 소아의 4년

3. 그럼에도 내가 '동행'하는 이유

제 활동계획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광주 바닥에서 계속 돌을 던질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쓸 겁니다. 서울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던 것들, 재밌게 연대하고 당당하게 외치는 작업들을 광주에서도 해낼 겁니다. 재판에서는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도 않은 채로 재판에 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면은 남들보다 한 번 더 검토하고, 기록은 남들보다 한 번 더 읽을 겁니다. 당사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게 무엇인지 끝까지 고민할 겁니다. 지역 법조에 신선한 충격을 줄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더 발랄해지고 더 까질 겁니다. 즐겁게 살 겁니다. 어쩌면 제일 거창한 활동계획일 수도 있겠네요.

소아의 4년

4년전 동행 창립총회를 하면서 한 가지 지향점이 있었고 한가지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지향점은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의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전달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차별의 벽도 부수는 결과도 맛보고) 바람은 이 지역에서 공익전업변호사가 되고자 나타나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연수원에서 처음 나올 때 그렇게 막막했거든요. 그때는 공익 전업변호사도 20명이 안되었고 같은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참 막막했어요. 활동가와 변호사 사이에서 번아웃도 되고 정체성 혼란도 느끼고...그래서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덜하게 되길 바라면서 동행을 만들었어요. 제가 시행착오를 미리 다 겪었으니 뒤에 오는 후배들은 그런 삽질 없이 덜 혼란스러우면서 덜 힘들면서 마구 나아갔으면해서. 그렇게 4년이 지나고 지금은 민아 소연 변호사 뿐만 아니라 성희 활동가까지 함께하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컬러풀한 워크샵도 하게 되었어요.

민아 소연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민아 : 여기에 동행이 없었으면 광주에 안왔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동행이 있어서가 (동행에 입사한 이유 중) 가장 큰 것 같아요.
- 소연 : 저도 그래요. 동행이 광주에 없다면 그냥 서울에서 구했을 거예요. 직접 단체를 만드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이 시작했지만 모두가 함께 해주셨기에, 동행이 이 지역사회에서 공익변호사를 품어낼 수 있는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은 순간이라 참 기뻐요. 동시에 몇년 후에는 권 소연 김민아 변호사가 이 지역에서 든든한 선배 변호사가 되어, 동행을 입사하고 싶은 더 멋진 곳으로 키워내리라는 것도 확신하게 되었지요.

동행이 멋진 요람이 되어 지역 인권의 경계를 부숴내도록 함께해 주세요.

동행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현우 변호사, 그 후



요새 어떻게 지내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하.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부산에서 소송구조 사건 한두 개 처리하고, 연대단체 장애인 이주 성소수자 단체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회의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부산 인권위에서 상담도 하고 있고, 부산진경찰서와 동래구경찰서에서 수사민원상담도 하고 있고요. 연제구청도 상담변호사로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고요. 영산대에 리트 준비반 특강도 나가고 있어요.

소송구조 사건 외에 공익사건도 하시나요?

가정폭력 이혼사건, 형집행정지 신청, 집시법 사건을 소송구조로 하고 있고요. 집시법 사건은 일본 영사관이 부산에 있는데 그 앞에서 시위하는 걸 못하게 했던 사건의 취소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단체로부터 지적장애여성 사건을 맡아서 고발장을 작성하는 사건이 한 건 있습니다.

동행 워크샵에서 나중에 동행과 같은 단체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변화가 있나요? 단체의 형태가 비영리단체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5년 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사선사건과 공익사건 가능한대로 모두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가 8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분명 공변을 하고 싶은 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과 함께 부산에서 단체를 꾸리지 않을까. 아직 고민이 많습니다. 영리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원곡 법률사무소에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을 생각입니다.

동행의 경험이 부산의 변호사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일단을 일 처리를 혼자 할 수 있다는 것들. 아무래도 동행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연대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요.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익 사건에 관심이 많았으니 공익사건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떤 연대단체들인가요?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잘 이야기 해주셨는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 ‘이주민과함께’라는 단체는 이주민 단체인데요. 이주민 디딤돌 걸림돌 판결 책을 받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거기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 현재는 부울경의 다른 단체들과 함께 부산·울산 외국인 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울산에서 지내다 여수보호소로 가신 분들에게 보호소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는 직접 전화를 걸었고, 실무관님들께 출입국관리법 강의도 했습니다(쑥스). 성소수자 분야에서는 부산퀴어문화제 기획단에 참여 하고 있고요. 부산 ‘살림’과 함께 성매매피해 여성 사건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변호사, 그 후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저는 장애 파트에 관심이 있어서, 현재 공공후견인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협회에 전화해봤는데 학대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셔서, 제게 후견인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들어서 공공후견인을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3년 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1년 후는 생존이 목표고요. 하하. 사무실의 연속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3년 후에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방을 두 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회의실로 쓰고 있지만, 생각은 많은데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동행이란?

저한테 동행이란... 아무래도 최초로 실무수습을 했던 곳이다 보니 공변양성소, 실습소,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동행이 의미가 있는 게, 지역사회 기반이라서 아직도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동행과 함께하는 사람들

후원회원 한마디

동행과 함께 同行하기로 한 그때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우리 사회를 위해 살고 있는 법률전문가 분들의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신현준 회원

힘없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므로...
배준성 회원

몇 년 전에 동행에서 도움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식듣고 반가웠고 고정수입이 생기면 후원해 야지 했는데 이제야 하네요. 좀 더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상희 회원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더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박광민 회원

비영리 단체 설립 관련 강좌 참여 계기로 동행의 아름다운 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선경호 회원

저도 지방에서 공변하는 게 꿈이에요!
권영실 회원

현장에서 동행을 알게 됐습니다. 사회 소수자를 위한 동행을 응원 합니다.
정슬기 회원

활짝이나 민우회, 그리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박재현 회원

반디 파트너로 함께 하며, 동행의 가치와 활동에 마음이 동해서^^
안효미 회원

지역사회의 빛이 되어 주세요!!!
서보훈 회원

모두의 활동이 멋지고 소중해서 작게라도 함께 가려고 후원 시작합니다당
오경미 회원

소중한 공변님들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기림 회원

평소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으로 훑쳐(?)보고 있었어요. ㅎㅎㅎ
이연주 회원

회원가입 및 후원 신청

'동행'의 마중물이 되어 주세요

정기후원 신청으로 동행의 활동을 지켜주십시오.

회원신청 방법

- ① 신청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작성한다.
- ② 이를 보낸다 : 우편으로, 혹은 앞뒷면을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이메일(companion.lfpi@gmail.com)로

* 동행은 기부회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고 안전하게 보존합니다.

회원가입 및 후원 신청서

① 회원정보

성명		휴대전화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합니다.		

② 후원내용

회원구분	<input type="checkbox"/> 후원회원	<input type="checkbox"/> 정회원(정회원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출금일자	<input type="checkbox"/> 1일	<input type="checkbox"/> 25일			
매월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③ 회비 납부 방법 선택

<input type="checkbox"/> CMS	아래 ③-1. 출금이체 신청서도 작성해주세요. ※ CMS 방식이 활동가들에게 더 편리함을 알려드립니다.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 032 029907 예 금 주 :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김용채

* 어떤 방법이든 뒷면 ④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세요!

③-1. CMS 출금이체 신청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수납기관명 :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대표자 : 김용채
사업자등록번호 : 605 82 80498	수납목적 : 동행 회비/후원금

〈출금이체 신청내용(신청자 기재란)〉

출금은행		출금 계좌번호	
출금일자	<input type="checkbox"/> 1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 6자리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잠깐! 뒷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꼭 읽고 작성해주세요!

회원가입 및 후원 신청

④ 개인정보 활용 동의

동행은 기부회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또한 법률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후원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보존 활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p>수집 및 이용목적 : 금융결제원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행, 우편물 발송, 행사안내, 뉴스레터 발송</p> <p>1.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번호,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p> <p>2.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부터 해지일까지</p> <p>3.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p> <p>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개인정보 활용 동의	<p>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휴먼소프트웨어 (회원관리프로그램 회사)</p> <p>5.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출금이체서비스 제공 및 출금이체 동의 사실 통지(금결원), 휴먼소프트웨어 (기부 관리, 기부 분석 및 기부 제안)</p> <p>6.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p> <p>7.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부부터 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p> <p>8.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CMS출금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p> <p>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 출금이체 동의 여부 통지 안내 : 금융결제원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p> <p>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후원신청인 : _____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p> <p>예금주 : _____ (인) 또는 서명</p> <p>예금주 연락처 : _____</p>	

절
취
선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전화 혹은 이메일로 문의해주세요.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제일오피스텔 302호

전 화 062-351-0518 / 010-8767-7796

홈페이지 www.companion-lfpi.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companionlfpi

팩 스 062-443-2015

이메일 companion.lfpi@gmail.com



Thanks to

(사)광주지방번호사회 (주)카카오톡 강단영 강보은 강부원 강성두 강영훈 강윤목 강윤진 강은옥 강정은 강행욱 고희주 고희철 고애순 고윤덕 (주)골드클래스
 광민섭 광복익 광선정 공공운수노조 광주도시철도공사지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인권평화재단 구용희 국상호 국중돈 권순국 권영실 권오성 권현숙
 권호현 기세운 기우식 길탁균 김가연 김가영 김경옥 김경정 김균영 김금례 김금화 김기연 김나운 김남희 김대희 김도형 김도희 김동호 김명현 김미란 김미리내
 김미애 김미영 김민경 김민선 김민영 김민지 김봉순 김분 김상현 김상훈 김상희 김서영 김서현 김석원 김선정 김성진 김성진 김수아 김수영 김수정 김수지
 김승태 김아영 김연주 김영균 김영숙 김영준 김예원 김용목 김용서 김용채 김용출 김원배 김원중 김유리 김유진 김윤택 김은아 김은찬 김인숙 김인숙 김자현
 김자희 김재희 김전근 김정 김정란 김진숙 김정완 김정우 김정현 김정호 김정희 김종보 김종철 김종필 김중희 김주미 김주혜 김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현
 김진 김진상 김진희 김철원 김태관 김태봉 김하나 김학철 김해숙 김향순 김현무 김현재 김형렬 김형범 김혜민 김호곤 김홍구 김효경 김효석 김희서
 김희승 김희영 나승구 나인형 노여진 노주희 노지연 도연 러반다이나믹스 류리 류제성마한열 만후스님 문기전 문길주 문정자 문정호 문현웅 문희열 민병로
 민선향 민우희아무 민은영 박강희 박광민 박덕희 박도영 박동하 박려형 박미향 박미희 박민철 박배연 박보경 박생환 박수경 박수인 박수지 박숙란 박애진
 박영수 박용주 박운수 박인동 박인숙 박재현 박종희 박준영 박지연 박지현 박찬동 박효란 방광호 배광열 배민진 배수지 배준성 백경주 백소영 백주선
 백희정 법률사무소휴먼 법무법인김길 법무법인이우 법무법인지음 법무법인리앤김 법무법인바른길 법무법인법가 법무법인형제 보성그룹 봉세탁 사공영빈
 사단법인두루 사단법인인재육성아카데미 사랑샘재단 사회적협동조합카페홀더 서경희 서명심 서보훈 서선영 서애련 서연우 서윤성 서정훈 서지훈 서창규
 서치원 서향교회 서현선 신경호 성지현 소라미 손명숙 손진홍 손희정 송기욱 송기호 송길용 송미란 송상교 송아람 송오식 송용진 송지현 송창운 송해경
 신고운 신광성 신길호 신수경 신원철 신유리 신현재 신현준 신희현 심재순 안생물 안순례 안진 안현주 안효미 양정웅 양차권 양창영 염미봉 오경미 오대한
 오민애 오병욱 오성미 오영주 오은송 오진숙 오충진 오현창 왕준상 우재학 위은진 유수경 유영선 유은미 윤경이 윤경혜 윤문희 윤석희 윤소는 윤영대
 윤우희 윤재훈 윤춘주 윤태환 윤형주 이강서 이건영 이건호 이건의 이광준 이근상 이기림 이기훈 이동석 이동화 이명옥 이문정 이민아 이보람 이상경
 이상봉 이상신 이상현 이상희 이선 이성숙 이소영 이소은 이숙영 이순학 이슬 아아선 이연이 이연주 이상선 이옥의 이용은 이육기 이은애 이은혜
 이재식 이재정 이재호 이재정 장경진 장길완 장보람 장아름 장유준 장은백 장지영 전경인 전명훈 전명희 전민규 전민숙 정교화 정다운 정미라 정미미
 임자은 임채영 임태호 임희연 장경진 장길완 장보람 장아름 장유준 장은백 장지영 전경인 전명훈 전명희 전민규 전민숙 정교화 정다운 정미라 정미미
 정병욱 정병준 정상문 정상국 정상영 정소연 정영환 정연순 정운재 정유미 정윤 정은정 정인경 정인기 정채용 정한결 정현진 조국환 조영환 조문순 조상균
 조선희 조수진 조영관 조영희 조재문 조지훈 조한진 조행자 주성아 주석회사민곤 주석회사소옥 진미식 진소영 진용태 진윤준 진주 차경희 차선자
 차현영 채숙희 채와라 채현숙 천정화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형욱 최기영 최영목 최목 최보영 최선아 최성현 최옥란 최용근 최용범 최유진 최윤수
 최정규 최정주 최지현 최철원 최향정 최현정 최희용 최훈 추현경 하주희 한광규 한국전력공사 한선규 한성실 한아름 한영주 한정일 한재이 한지우
 한창주 한충용 함은희 홍관희 홍성아 홍세현 홍순광 홍순진 홍지은 홍현수 황신애 황연수 황용하 황준협 황진희 황필규 황해경 황현철 황화중 회두리



Special Thanks to

김서정(후원영상제작) 김정(타로로 보는 내면) 김정희(주차권과 유사시 사무실제공) 문화컨텐츠그룹 잇다(후원의밤영상제작, 공간마련 자문) 박기범
 (소셜펀딩의 모든 것) 박미희와 김천일(법률행정상담) 박상희(선선한 노래공연) 박인동(후원회원 사회 및 각종 인동 찬스) 서현선(조직문화 강의) 시나페
 나창진(난독회 공연 및 연출) 오경미(여행용 파우치) 왕꽃 김지현(영어 통번역, 5월 엽서) 이상갑(스피커) 이선일 류은숙 엄기호 정주연(인권을 그리다 전시회
 및 강연) 이현우(스타벅스 커피쿠폰) 이흥규(컴퓨터 점검) 인디엔피(감각있는 홈페이지, 홍보물) 임준형(사진, 포토샵) 정병준(영혼의 갈비탕) 조영관(화순
 가정떡) Chanoknan Ruamsap(태국어, 영어 번역) 최정규(법률지원 막힐 때 무한 소스제공) 최희용(종합소득세신고, 회계자문) 카페홀더(커피 케이터링)
 컬처네트워크 윤현석 김슬(공간 마련 자문, 맥주)



Very Special Thanks to(조경하는 멋진 활동가들)

김대건 김민경 김민정 김성인 김순임 김용목 김이찬 김정은 김효경 김희영 남궁미 도연 몽실 박려형 박수경 박수인 박용주 박진희 박찬동 백희정 보통 봄봄
 서보훈 아무 안영숙 안효진 알바트로스 유빈 유이정 윤영대 이간희 이국연 이기림 이정일 정인경 채숙희 홍관희 황정아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제일오피스텔 302호

전화 062-351-0518, 010-8767-7796 | 팩스 062-443-2015

이메일 companion.lfpi@gmail.com | 홈페이지 www.companion-lfpi.org

동행의 그림과 로고의 저작권은 동행에게 있습니다.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동의를 구해주시시오. | 로고 그림 신주욱